



숨쉴 곳이 없어서 양재동 왔다

열사 100일, 양재동엔 법이 없었다

6월 24일은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신지 100일 되는 날이다. 그리고 현대차 상징석 앞 열사 집회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은 날이었다. 그동안 상징석 앞은 현대차 용역들이 선점하고 있었지만 1박2일의 집회신고 투쟁을 통해 어렵게 열사 집회를 보장받은 날이었다. 그러나 용역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경찰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 현대차의 시설보호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가, 보행자 통행로 확보 때문이라고 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확실한 것은 경찰이 스스로 내준 집회신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원천봉쇄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참 대단했다.

승리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

아직 열사와 관련해서 진전된 것은 없다. 현대차와 유성기업 모두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투쟁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묵묵부답이던 현대차가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공식적으로 변명하도록 만들었다. 현대차의 상징인 상징석을 한달째 가림막으로 가려놓게 만들었다. 현대차 자본이 대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열사 투쟁 100일째이던 24일 밤, 경찰의 난입으로 예정에 없던 고공농성이 시작되자 경찰은 3시간만인 새벽 2시반에 무리한 진압작전까지 벌이며 고공농성을 철거시켰다. 현대차 자본이 한광호 열사 투쟁을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현대차라는 거대 재벌과 노동부,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까지 연루된 거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유성기업이 5년이 넘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하고 있다. 현대차가 노조파괴의 진짜 주범으로 확인됐고 검찰이 더는 봐줄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가 재판에서 확인됐다. 유성지회는 투쟁에 지치지 않고 있다. 승리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

마지막 한방은 연대의 힘!

조금 더디지만 우리는 승리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2%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그 아쉬움만 채울 수 있으면 열사 투쟁 승리와 노조파괴 분쇄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다. 매주 화요일 양재동 농성을 함께 하자. 열사 집회에 조금 더 많이 참가하자. 우리는 함께 하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자.

최저임금 대폭 올리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위원회는 28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작년부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고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노동계는 1만원 인상, 재계는 동결을 주장한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만들어졌다. 올해 치러진 총선에서도 대부분의 정당이 시기만 조금 달랐을 뿐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27일~28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노숙농성투쟁을 벌인다.

* 이번주 일정 *

■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일자 : 6/29(수) 14:00

장소 : 금속노조 회의실

■ 2016년 임단협 조정신청

일자 : 6/30(목)

■ 대전지역 열사 촛불집회

일시 : 6/30(목)

장소 : 대전 타임월드 앞